

휴비스, 문성환 신임사장 선임



화학섬유 전문기업 휴비스는 전임 사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삼양사 문성환 부사장을 8월1일자로 신임사장으로 선임됐다.

문성환 사장은 1954년 전남 순천 생으로 1975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1974년 삼양사에 입사해 식품본부 제당사업부장, 섬유본부 구매팀장, 의약BU장을 거쳐 경영기획실장(부사장)으로 재임해왔다.

휴비스는 2000년 11월 SK케미칼과 삼양사가 50대50으로 지분을 투자해 설립했으며, 중국 Sichuan과 Hangzhou 등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화학저널 2006/07/21>